

노인 만성질환자 돌봄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도 인지와 영향요인

김 춘 길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Influencing Factors and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for Chronically Sick Elderly

Kim, Chun-Gill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f nurses' caring behavio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04 nurses who were caring the chronically sick elderly in five H university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n the importance of caring behaviors,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job satisfaction.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6.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was 3.38 and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factor was the highest level. The mean scor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was 7.53 and job satisfaction, 3.18.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 value, job satisfaction, nurse's age and work experience among demographic variables. Two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were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job satisfaction. But characteristics of nurses did not influe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can be improved by intervening factors affecting this importa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rther nursing practice and nursing research for nurses caring the sick elderly should be focused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job satisfaction.

Key Words: Nursing care,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08년 그 비율은 10.3%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인구는 2018년을 쟁점으로 감소할 것이나 이에 비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추정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만성질환의 증가는 주요 문

주요어: 돌봄행위,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Chun-Gill,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9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14, Fax: 82-33-248-2734, E-mail: kimcg@hallym.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09-04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09 (HRF-2009-041).

투고일 2010년 3월 17일 / 수정일 2010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일

제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활동제한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돌봄을 보다 필요로 하지만(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 가족형태 변화로 노인돌봄과 관련된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면서 노인인구의 돌봄은 상당부분 전문직 간호인력에 의존하고 있다(Cho, 1999). 이때 돌봄은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며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통하여 표현된다(Lee, 1998). 특히 만성질환자는 심도 있는 돌봄을 요구하게 되며 간호사는 돌봄을 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므로, 노인환자가 입원을 할 경우 간호사의 돌봄행위는 더욱 중요해진다(Berg, Skott, & Danielson, 2007; Jonasson, Liss, Westerlind, & Berterö, 2010). 또한 고령화 시대와 만성질환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건강과 질병구조의 변화는 질병치료중심의 의료적 패러다임에서 인간상호 관계 속에서의 돌봄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한다(Shin, 2006). 따라서 만성질환 노인환자의 돌봄 간호에서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알아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caring)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보호하다의 뜻을 가진 '돌보다'의 명사형으로, 대인 서비스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간호에서는 돌봄을 환자중심의 간호활동으로 그 본질을 강조해 왔으며, 돌봄에 의해 간호가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통합적 개념으로 본다. 아울러 돌봄의 질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며 나아가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간주하고 있다(Cho, 1999; Lee, 1996; Tuckett, 2005). 돌봄의 속성은 여러 간호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인간고유의 특질, 도덕적 명령, 감동시키는 것, 대인관계 및 치료적 중재(Morse, Solberg, Neander, Bottorff, & Johnson, 1990)로 볼 수 있으며 노인을 돌볼 때에는 간호사의 열정, 민감성, 인내심 및 신뢰와 같은 돌봄 요소가 필요하다(Erlen, 2007). 반면, 돌봄은 간호학자의 시각에 따라 정의, 요소 및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보일뿐 아니라 간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게 된다(Lee & Chang, 1995; Liu, Mok, & Wong, 2006). 아울러 돌봄간호는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주관적인 과정(Wolf, Giardino, Osborne, & Ambrose, 1994)이므로 간호사에 따라 인지에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병원에서는 노인환자의 증가에 따라 돌봄 주대상자인 노인의 간호 돌봄에 대한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이는 돌봄에 대한 평가, 즉 간호사의 돌봄행위에 대한 측정을 필요로 한다(Wu, Larrabee, & Putman, 2006).

한편, 병원환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환자의 돌봄은 젊은이나 중년성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Boltz et al., 2008), 이들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돌봄행위에 대한 인지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돌봄의 질은 간호사가 돌봄을 간호의 특성으로 보는 중요도의 시각과 인지에 의하며(Chang, Chenoweth, & Hancock, 2003), 노인 돌봄의 결과에는 간호사의 전문직 경험과 근무조건, 즉 병원특성 및 간호인력 등이 관련되므로(Boltz et al., 2008) 노인 돌봄행위에는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병원간호사의 돌봄 간호실무 역량이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받았으며(Khomeiran, Yekta, Kiger, & Ahmadi, 2006) 근무조건, 행정적 뒷받침 및 업무부담에 대한 총괄적 개념인 직무만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돌봄행위에서 중요 영향 요인이었음(Lee, 1998)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 돌봄 간호사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외국에서는 노인 돌봄 윤리문제에 대한 간호사 인식(Rees, King, & Schmitz, 2009)과 노인 돌봄에 관련되는 간호사의 특성(Erlen, 2007) 등의 연구가 있을 뿐,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돌봄행위 중요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노인질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알아보고 그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간호사의 특성,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 변수를 중심으로 알아봄으로써 노인 돌봄 간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 돌봄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도 인지정도를 알아보고 그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 간호 돌봄의 기초자료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가 인지하는 노인의 돌봄행위 중요도,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중요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돌봄행위 중요도와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 돌봄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성 인지 정도와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2009년 9월에서 11월까지 H대학교 5개 병원에서 관절염, 뇌졸중,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당뇨병, 신부전 등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노인의 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서면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 작성을 중도에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 간호부의 승인과 노인환자가 입원된 병동 부서장의 협조로 부서별로 해당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응답한 다음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총 문항 수의 5배 수(Burns & Grove, 1987)인 390명에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처음 조사한 설문지 부수는 430부였다. 이중 설문지 수거에 응하지 않았거나 설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40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돌봄행위

돌봄행위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경험이며 간호사가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및 신체적 지원과 도움(Liu et al., 2006)으로 Wolf 등(1994)의 돌봄 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원 도구는 취약성이 있는 환자의 안녕을 목표로 제공되는 돌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orse 등(1990)이 제시한 돌봄의 속성과 Erlen (2007)의 돌봄에 필요한 요소들을 측정하고 있다. 43개 문항 중 원 도구개발 당시 요인분석에서 누락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42개 문항을 한글로 변안한 후 간호학 교수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았다. 이 도구는 돌봄행위에 대한 진술 문항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거의 중요하지 않다.' 2점, '대체로 중요하다.' 3점, '매우 중

요하다.' 4점으로 하여 42~168점의 범위를 가지며 측정값이 높을수록 돌봄행위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42 문항은 5개 요인인 '환자에 대한 존중 12문항', '함께하여 안심시키기 12문항', '긍정적인 관계 9문항', '전문 지식과 기술 5문항',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olf 등(1994)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Cronbach's $\alpha = .96$, 요인별 Cronbach's $\alpha = .80 \sim .92$ 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Yeun, Kwon, & Ahn,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 정도를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cm의 수평선으로 왼쪽 끝은 간호전문직관을 0점으로 하고 오른쪽 끝은 10점으로 하여 간호사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전문직관의 해당 점수를 도구에 표시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각적 유사척도는 개인의 확신에 따른 선택의 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하여 쉽게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도구의 타당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Torrance, Feeny, & Furlong,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간호사 45명에게 간호전문직관 도구로 입증된 Yeun 등(2005)의 도구와 시각적 유사척도를 함께 조사한 후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r = .763, p < .001$) 도구의 수렴타당도가 검정되었다고 보았다(Burns & Grove, 1987).

3) 직무만족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는 호의적인 태도(Yom, 2009)로 Yom (2009)이 사용한 간호사의 전반적인 직무만족 측정도구 6문항을 이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의 본 도구는 6~3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Yom (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2$ 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돌봄행위 중요도,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중요도의 차이는 t-test나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 돌봄행위 중요도와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나이는 22~50세의 범위로 평균 29.3세였으며 경력은 1~318개월의 범위로 평균 77.2개월이었다. 성별은 99.3%가 여성이었고 교육정도는 3년제 간호대졸 56.2%, 4년제 간호대학 졸 36.1% 순이었다. 70.0%가 미혼이었으며 종교는 48.5%가 없었고 다음이 기독교 21.1%였다. 동거형태는 자취나 기숙사 등의 기타형태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부모, 그리고 배우자·자녀와 함께였다. 근무부서는 내·외과 병동이 대부분이었고 91.3%가 일반 간호사였다. 월수입은 200~250만원이 69.3%로 가장 많았으며 월 밤번 횟수는 6~8회가 57.4%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돌봄행위 중요도, 간호전문직관 및 직무만족 정도

간호사가 인지한 노인 돌봄행위의 중요도는 91~168점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은 142.09 ± 14.20 점(평균 평점 3.38점: 이하 평균 평점 기재를 생략함)으로 중요도의 인지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5개 요인별 범위와 평균은 ‘환자에 대한 존중’ 26~48점의 범위와 평균 41.15 ± 3.97 (3.43점), ‘함께하여 안심시키기’ 23~48점의 범위와 평균 40.09 ± 4.74 (3.34점), ‘긍정적인 관계’ 19~36점의 범위와 평균 29.70 ± 3.25 (3.30점), ‘전문 지식과 기술’ 11~20점의 범위와 평균 17.40 ± 2.06 (3.48점),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기’ 8~16점의 범위와 평균 13.75 ± 1.80 (3.44점)을 나타내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장 낮게 인

지하고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2~10점의 범위와 평균 7.53 ± 1.56 점으로 중상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직무만족 정도는 6~30점의 범위와 평균 19.10 ± 3.48 점(3.18점)으로 중상의 직무만족을 보였다(Table 2).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중요도의 차이

간호사의 돌봄행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교육정도($F=4.54, p=.011$)로 석사이상의 교육군이 전문대학 졸업군보다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하였다. 결혼상태($t=-2.27, p=.022$)는 기혼군의 돌봄행위 중요도 인지정도가 미혼군보다 높았다. 직위($F=3.91, p=.021$)는 책임간호사군이 일반 간호사군보다 돌봄행위 중요도 인지정도가 높았다. 월수입($F=4.26, p=.002$)은 많은 군에서 돌봄행위 중요도 인지정도가 높았으나 사후 검정결과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4. 돌봄행위 중요도와 간호직 전문성, 직무만족 간의 관계

돌봄행위 중요도는 간호전문직관($r=.25, p<.001$), 직무만족($r=.34, p<.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돌봄행위의 중요도 인지가 높았다. 또한 돌봄행위 중요도는 간호사의 나이($r=.16, p=.001$) 및 경력($r=.17, p<.001$)과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간호사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높이 인지하고 있었다(Table 3).

5.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 변수인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정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간호사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간호사의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위, 월수입을 독립변수로 하고,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분석해 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82~0.9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1~1.22로 10 이하로 나타나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Song, 2008). 회귀분석결과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과 간호전문직관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8%였다(Table 4).

Table 1. Differences of Caring Behavior according to Nurses' General Characteristics

(N=4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p)	Scheffe
Age (year)	(range: 22~50)		29.3±5.31		
Career (month)	(range: 1~318)		77.2±65.65		
Sex	Male	3 (0.7)	3.60±0.27	1.44 (.284)	
	Female	401 (99.3)	3.38±0.33		
Education	3-year diploma ^a	227 (56.2)	3.35±0.35	4.54 (.011)	a<c
	Bachelor ^b	146 (36.1)	3.40±0.32		
	≥Master ^c	31 (7.7)	3.53±0.28		
Marital status	Unmarried	283 (70.0)	3.36±0.34	-2.27 (.022)	
	Married	121 (30.0)	3.44±0.33		
Religion	Buddhism	53 (13.1)	3.36±0.39	0.38 (.771)	
	Protestant	85 (21.1)	3.38±0.34		
	Catholic	70 (17.3)	3.42±0.31		
	None	196 (48.5)	3.38±0.33		
Living together	Parents	91 (22.5)	3.42±0.33	1.51 (.197)	
	Parents-in-law	8 (2.0)	3.40±0.28		
	Spouse or children	90 (22.3)	3.41±0.34		
	Brother or sister	42 (10.4)	3.28±0.35		
	Others (alone, dormitory)	173 (42.8)	3.37±0.34		
Working area	Medical unit	191 (47.3)	3.39±0.34	0.43 (.652)	
	Surgical unit	163 (40.3)	3.39±0.35		
	Special unit (ICU, HD etc)	50 (12.4)	3.34±0.30		
Position	Staff nurse ^a	369 (91.3)	3.37±0.34	3.91 (.021)	a<b
	Charge nurse ^b	29 (7.2)	3.53±0.28		
	Head nurse ^c	6 (1.5)	3.54±0.34		
Salary (10,000 won)	< 200	54 (13.4)	3.36±0.34	4.26 (.002)	
	200~< 250	280 (69.3)	3.35±0.34		
	250~< 300	42 (10.4)	3.47±0.33		
	300~< 400	19 (4.7)	3.58±0.31		
	≥ 400	9 (2.2)	3.63±0.28		
Monthly night duty (times)	0~2	52 (12.9)	3.49±0.28	2.41 (.067)	
	3~5	108 (26.7)	3.35±0.33		
	6~8	232 (57.4)	3.38±0.35		
	≥9	12 (3.0)	3.27±0.31		

ICU=intensive care unit; HD=hemodialysis.

Table 2. Levels of Caring Behaviors,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Job Satisfaction of Subjects

(N=404)

Variables	Range	M±SD	Item mean
Caring behavior	91~168	142.09±14.20	3.38
Respectful deference to other	26~48	41.15±3.97	3.43
Assurance of human presence	23~48	40.09±4.74	3.34
Positive connectedness	19~36	29.70±3.25	3.30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11~20	17.40±2.06	3.48
Attentive to other's experience	8~16	13.75±1.80	3.44
Nursing professional value	2~10	7.53±1.56	-
Job satisfaction	6~30	19.10±3.48	3.1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aring Behavior and Other Variables

(N=404)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 value	Job Satisfaction	Age	Career
Caring behavior, r (p)	.25 (<.001)	.34 (<.001)	.16 (.001)	.17 (<.001)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Caring Behavior

(N=404)

Variables	B	β	R ²	Adj R ²	t	p	F	p
Job satisfaction	1.406	.343	.118	.116	7.335	<.001	30.60	<.001
Nursing profession	1.178	.288	.133	.128	5.612	<.001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국내 간호사의 연구들(Ko & Chung, 2004; Kwon, Chu, & Kim, 2009; Lee, 1998; Yeun et al., 2005; Yom, 2009)과 비교해 볼 때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월급은 비슷하여 우리나라 병원간호사의 특성은 대부분 20대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미혼이 많고 월급은 200~25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만 남자간호사가 0.7%를 보여 Wolf 등(1994)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6.8%였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돌봄행위의 중요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위, 월수입으로 Lee (1998)의 나이, 결혼상태, 종교, 월수입, 동거인, 경력, 직위,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 그리고 연령, 최종 학력, 결혼상태에 따라 돌봄행위 중요도에 차이가 있던 결과(Kim & Lee, 199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석사 이상 군에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지한 점으로 볼 때 간호사의 돌봄행위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직위 및 월수입에 따라 돌봄행위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두 변수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직위가 높아짐에 따라 월수입도 증가되어 같은 맥락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결혼상태에 따른 돌봄행위의 차이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미혼이었으므로 추후 기혼자 수를 늘려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사가 인지한 노인 돌봄행위의 중요도는 본 연구에서 최고 4점 중 3.38점으로 중요도의 인지는 높은 편이었고 5개 요인별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기, 환자에 대한 존중, 함께하여 안심

시키기, 긍정적인 관계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노인입원환자의 돌봄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199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돌봄행위 중요도는 중상의 정도를 보였던 결과와 상통되었으며, 다른 도구를 적용한 Kim과 Lee (1999)의 연구에서 병원 입원 성인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돌봄행위 중요도는 7점 만점에 5.65점으로 높았고 환자의 처치나 간호에 대한 문항들의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환자 간호사는 ‘표현, 감정적인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며(Von Essen & Sjöden, 1993) 장기요양세팅에서 간호사는 ‘노인 환자의 말에 따르기’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결과(Smith & Sullivan, 1997)와는 차이를 보여 간호사의 돌봄행위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의 본질적 특성은 돌봄 제공자보다는 돌봄을 제공받는 이들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Tuckett (2005)의 주장과 돌봄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가 평가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돌봄의 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지가 중요하다는 환자중심 간호모델(Wu et al, 2006)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돌봄행위에 대해 노인환자의 인지정도가 평가 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특히 돌봄행위는 간호사-환자 상호간의 작용이며 두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인지정도가 환자의 인지점수보다 높았고(Kim & Lee, 1999) Wolf 등(199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와 환자간의 돌봄행위 중요도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노인 돌봄 연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행위 중요도 인지에 대해 동시에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근거를 보다 크게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의 요인 중 긍정적인 관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나 돌봄에서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

소임(Morse et al., 1990; Tuckett, 2005; Wolf et al., 1994)을 고려해 볼 때 관계형성에 대해 병원 노인 돌봄 간호사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중상 정도이었던 결과는 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중상 정도이었던 연구결과들(Ko & Chung, 2004; Kwon et al., 2009; Yeun et al., 2005)과 일치하였지만 그 정도는 아주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이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측정도구를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여 실무에서 빠르고 쉽게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도구의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연구의 도구(Yeun et al., 2005)와 본 도구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도는 물론 신뢰도 검증까지를 분석하여 간호전문직관의 시각적 상사척도 사용 적정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 정도는 최고 5점 중 3.18점으로 중상 정도를 보여 같은 도구를 사용한 Yom (2009)의 연구에서 2.91점, 다른 도구를 적용하여 5점 중 2.74점과 2.89점을 나타낸 Ko와 Chung (2004) 그리고 Kwon 등 (2009)의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들 연구결과들로 볼 때 아직까지 국내 간호사들의 간호직에 대한 직무만족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호사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일 방안으로 직무만족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행위 중요도는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간호사의 나이 및 경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1998)의 연구에서 돌봄행위의 중요도가 간호사의 직무만족, 나이, 경력, 결혼기간, 수입, 초과 근무시간 및 밤번 근무일수와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 그리고 좋은 돌봄은 노인을 돌보는 이에게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Mafullul과 Morriss (2000)의 보고와 일부 상통되었다. 이로 간호사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노인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높이 인지하며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돌봄행위의 중요도 인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실무와 교육현장에서는 이들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입원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간호사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들의 노인 돌봄 중요도 인식고취는 물론 직무만족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돌봄행위 중요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같

은 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돌봄행위 중요도와 직무만족 간에는 순 상관관계(Lee, 1998)가 있었고 직무만족과 간호전문직관 간에도 순 상관관계(Ko & Chung, 2004)를,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간호업무수행과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연구보고(Kwon et al., 2009)로 미루어 볼 때 변수 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돌봄 대상자의 차이와 측정 개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사의 노인돌봄행위를 높게 인지하여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간호전문직관이었던 결과는 Lee (1998)의 성인 환자인 연구에서 간호사의 돌봄행위 인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직무만족,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앞으로의 근무기간이 10~19년인 경우, 결혼기간, 나이였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직무만족이 우선적인 영향 요인이었던 점은 일치하였으나 다른 요인은 조사 내용에 차이 등의 이유로 달랐다. 특히 Lee (199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호스피스 및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돌봄 중요도 인지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의 조사병동이었던 내·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의 돌봄중요도 인지정도가 낮았던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후 다양한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간호업무수행에 영향 요인이었던 연구보고(Kwon et al., 2009)와 약간 상통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간호업무수행과 돌봄행위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의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정도에 대해서는 재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돌봄행위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간호전문직관을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다 항목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간호전문직관의 노인 돌봄행위 중요도에 대한 설명력은 12.8%로 그 설명력이 낮았으므로 노인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사의 특성을 추가하고 노인간호 실무환경 요소(Boltz et al., 2008)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으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돌봄행위 중요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간호사의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위,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노인간호에서 돌봄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 현장에서는 이 변수들을 사정함과 아울러 중재가 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혹은 집단으로 교육 및 보상 등의 합당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돌봄 중요도에 대한 인지정도와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노인돌봄 간호의 기초자료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40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SPSS/WIN 16.0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돌봄중요도 인지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돌봄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였다. 돌봄행위 중요도는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간호사의 나이 및 경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이었으며 간호사의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위,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에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돌봄간호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변수들에 대한 사정과정·장기 계획 하에 이에 대한 동기유발, 중재 및 평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노인돌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은 편이었고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이 만성질환 노인돌봄행위의 중요도에 영향 요인이었으므로 간호사의 노인돌봄 교육과 연구에서 기초자료의 확장을 도모하였음에 연구적 의의를 둔다. 반면 이들 변수의 노인돌봄행위 중요도에 대한 설명력은 낮았으므로 이후 다양한 근무상황에서 대상자를 간호사와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돌봄행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간호 실무와 교육에서 돌봄행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적용하여 노인 돌봄행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erg, L., Skott, C., & Danielson, E. (2007). Caring relationship in a context: Fieldwork in a medical ward.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3(2), 100-106.
- Boltz, M., Capezuti, E., Bowar-Ferres, S., Norman, R., Secic, M., Kim, H., et al. (2008).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the geriatric nurse practice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0(3), 282-289.
- Burns, N., & Grove, S. K. (1987). *The practice of nursing research conduct, critique and utilization*. Philadelphia: Saunders Company.
- Chang, E., Chenoweth, L., & Hancock, K. (2003). Nursing needs of hospitalized older adults: Consumer and nurse perception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9), 32-41.
- Cho, M. O. (1999). An ethnography of succession of caring behavior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 42-71.
- Erlen, J. A. (2007). The frail elderly: A matter of caring. *Orthopaedic Nursing*, 26(6), 379-382.
- Jonasson, L. L., Liss, P. E., Westerlind, B., & Berterö, C. (2010). Ethical values in caring encounters on a geriatric ward from in the next kin's perspective: An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6(1), 20-26.
- Khmeiran, R. T., Yekta, Z. P., Kiger, A. M., & Ahmadi, F. (2006). Professional competence: Factors described by nurses as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3(1), 66-72.
- Kim, Y. Y., & Lee, B. S. (1999).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staff nurses and pati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6(1), 18-34.
- Ko, S. H., & Chung, B. Y. (200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335-344.
- Kwon, K. J., Chu, M. S., & Kim, J. A. (2009). The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2), 182-192.
- Lee, B. S. (1996). Concept analysis of 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2), 337-344.
- Lee, H. K. (1998). *Factors influencing the nurses' perceptions of car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S. J., & Chang, S. O. (1995). The study on the content analysis of caring, supporting, nursing sit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7(2), 279-298.
- Liu, J. E., Mok, E., & Wong, T. (2006). Caring in nursing: Investigating the meaning of caring from the perspective of cancer patients in Beijing, China.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2), 188-196.
- Mafullul, Y. M., & Morriss, R. K. (2000).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care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informal

- carers of demented and non demented elderly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5(7), 594-599.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 July).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ctivity Limitatio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etrieved March 7, 2010, from Web site: <http://www.mw.go.kr>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October). *2009 Yearbook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statistics*. Retrieved March 7, 2010, from Web site: <http://stat.mw.go.kr>
- Morse, J. M., Solberg, S. M., Neander, W. L., Bottorff, J. L., & Johnson, J. L. (1990). Concepts of caring as a concept. *Advanced Nursing Science*, 13(1), 1-14.
- Rees, J., King, L., & Schmitz, K. (2009). Nurses' perceptions of ethical issues in the care of older people. *Nursing Ethics*, 16(4), 436-452.
- Shin, H. J.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aring in nursing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Smith, M. K., & Sullivan, J. M. (1997). Nurses' and patients' perceptions of most important caring behaviors in a long-term care setting: Patients and nurses agree on the importance of a combined scientific-humanistic caring approach. *Geriatric Nursing*, 18(2), 70-73.
- Song, J. J. (2008). *SPSS/AMOS statistical analytic method for thesis*. Paju: 21C Book Company.
- Torrance, G. W., Feeny, D., & Furlong, W. (2001). Visual analog scales: Do they have a role in the measurement of preferences for health states? *Medical Decision Making*, 21(4), 329-334.
- Tuckett, A. G. (2005). The care encounter: Pondering caring, honest communication and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1(2), 77-84.
- Von Essen, L., & Sjöden, P. O. (1993). Perceived importance of caring behaviors to Swedish psychiatric inpatients and staff, with comparisons to somatically-ill samp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6(4), 293-303.
- Wolf, Z. R., Giardino, E. R., Osborne, P. A., & Ambrose, M. S. (1994). Dimensions of nurse caring.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6(2), 107-111.
- Wu, Y., Larrabee, J. H., & Putman, H. P. (2006). Caring behaviors inventory: A reduction of the 42-item instrument. *Nursing Research*, 55(1), 18-25.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Yom, Y. H. (2009).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ealth status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2), 216-224.